



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

- 안성시의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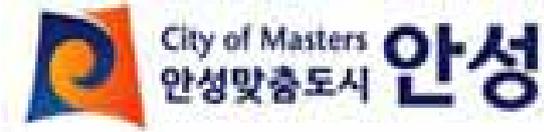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



안성시의회

차 례



■ 연수 개요

1. 연수 목적
2. 연수 개요
3. 연수 일정

■ 주요 연수 내용

1. 연수 대상 일반현황
2. 연수 분야 및 우리시 비교
3. 벤치마킹 참고자료

■ 연수 후기

1. 연수를 마치며

1. 연수 목적

- 해외연수를 통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걸 맞는 국제적인 감각과 역량을 배양하여, 의정활동에서 발생하는 우리시 다양한 현안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 마련
- 또한 전세계적 경제 위기를 맞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방안을 선진 해외연수를 통해 해법을 찾고 이중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특성화된 안목과 견문을 넓히고, 우리시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방향을 모색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연수 개요

가. 기 간 : 2010. 10. 11(월)~10. 15(금) 【4박 5일간】

나. 연수단 : 16명

(시의원 8명, 의회사무과 직원 5명, 시청관계 공무원 3명)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계		16명	
안 성 시 의 회	의 장	이 동 재	단 장
"	운영위원장	박 재 균	
"	자치행정위원장	이 수 영	
"	산업건설위원장	이 옥 남	
"	의 원	김 지 수	
"	의 원	신 동 례	
"	의 원	유 지 성	
"	의 원	유 혜 옥	
의 회 사 무 과	전 문 위 원	이 주 성	
"	의 정 팀 장	송 병 훈	
"	주 무 관	이 호 석	
"	주 무 관	김 수 성	
"	주 무 관	이 주 미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최 승 린	
환 경 과	주 무 관	장 문 수	
공보감사담당관	주 무 관	권 정 임	

다. 연수 주요 과제

- 선진국 의정활동 운영 실태 비교
-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 환경관련 시설 비교 견학
- 재래시장 현장 견학 등

3. 연수 일정

- 대상지 : 일본(오사카, 교토, 고베)

일자	지역	교통편	시간	여행일정	비고
제1일 10월 11일 (월)	오사카 ▽ 나라 ▽ 오사카	버스 0Z1125 전용 버스	04:30 08:30 10:10 01:20 18:00~	안성시청 집결 김포공항으로 이동 김포 공항 출발 ♣ 오사카 간사이 공항 도착 입국수속 후 나라로 이동 ▶ 동대사 및 법륜사 견학 ▶ 숙소도착(하얏트 호텔)	
제2일 10월 12일 (화)	오사카	전용 버스	10:00 13:00 15:00 16:30	▶ 오사카 중앙구 시의회 방문(담당자:酒井様외 1명) 의회견학, 담당자 설명 및 질의 답변등 ▶ 오사카성(문화 박물관) ▶ 요도가와 강 주변 ▶ 구로몬시장(재래시장)방문 도통보리(음식점 문화 거리) 현장체험 신사이바시 (명동거리, 청계천의 표본)	
제3일 10월 13일 (수)	오사카 ▽ 교토 ▽ 오사카	전용 버스	10:00 13:00 16:10	▶ 에이지레스 센터(ATC 센터, 사회복지시설) 방문 (담당자:西岡, 마에다 과장) ▶ 교토시청 환경국 마나베자원리사이클센터 방문 (담당자:오가상) ▶ 미야코 에콜로지센터(환경교육장) -녹색성장(환경)관련시설 견학	
제4일 10월 14일 (목)	오사카 ▽ 교토 ▽ 오사카	전용 버스	10:00 13:00 15:40	▶ 교토 카모가와 상수사업소 방문 -현황설명 및 질의답변등 (담당자:고바야시, 교토시 하천·사방관리) ▶ 토바수질환경경계 보전센터(하수처리장)방문 -현황설명 및 질의답변 등 ▶ 이조성(세계문화유산등록) 견학	
제4일 10월 15일 (금)	오사카 ▽ 고베 ▽ 인천 ▽ 안성	전용 버스 0Z113	09:30 13:30 17:00 18:50 21:30	▶ 고베 방재센터 방문 및 체험 [안내자:玉希珠] ▶ 차이나 타운 인프라 견학 ♣ 간사이 공항 출발(약 1시간 50분 소요) ♣ 인천 국제공항 도착 ♣ 안성시 도착후 해산	

1. 연수 대상의 일반현황

◎ 오사카시

오사카 부[大阪府]는 혼슈[本州] 중앙보다 약간 서쪽에 위치한다. 긴키 지방에서 제일 넓은 오사카 평야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나라 현[奈良縣], 북동쪽으로는 교토 부[京都府], 북서쪽으로는 효고 현[兵庫縣], 남쪽으로는 와카야마 현[和歌山縣]에 인접하고, 서쪽으로는 오사카 만을 바라보면서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를 통해 주고쿠[中國]·시고쿠[四國]·규슈[九州]와 연결되어 있다. 예로부터 긴키 지방 수륙교통의 요충지였으며 지금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 기후

오사카 지방의 기후는 온난하며 연평균기온은 15.5℃로서 기온의 계절차가 심하다. 연평균강수량은 1,359mm로, 겨울에는 강수량이 적고 초여름의 장마철과 초가을의 태풍기에는 비가 많으나 한여름에는 비교적 강수량이 적다. 요도가와 강과 같은 하천은 과거 곧잘 범람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는데, 메이지 이후의 치수공사로 지금은 그 피해가 거의 없어졌다. 한국의 날씨와 비교하자면 3℃정도 높은 날씨이며, 봄·가을에 여행하는 것이 좋다.

◆ 인구 및 면적

오사카의 주민은 265만명 정도이다. 128만세대가 있고 세대당 성원 수는 2.1명이었다. 인구밀도는 km² 당 11,000명이다. 10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가장 큰 집단은 한국인(71,000명)과 중국인(11,000명)이다. 이쿠노 구의 쓰루바시 지구는 일본에서 가장 큰 한국인 거주지 중 하나로 제일 한국인 27,000명이 등록되어있다.

◎ 교 토 시

산업도시로 오사카[大阪]에서 북동쪽으로 47km, 문화도시인 나라[奈良]의 북쪽으로도 비슷한 거리 만큼 떨어져 있으며 긴키[近畿]지방의 중심도시이다. 794~1868년까지 1,000년 이상 황궁[皇宮]이 있던 일본의 수도였으며, 불교문화와 직물업·요업 등의 전통산업을 선도하여 왔다. 현재에는 오사카·고베와 함께 게이한신 공업지대(오사카·고베·교토를 포함하는 일본 제2의 공업지대)의 중심도시이자 국제적인 문화·관광 도시이다. 면적 610.6km², 인구 약 143만명.

◆ 기후

일본 내륙지방의 전형적인 기후로, 덥고 습한 여름과 추운 겨울로 특징지어진다. 연평균기온은 15℃, 가장 더운 8월평균기온은 27℃, 가장 추운 1월 평균기온은 3℃ 정도이다. 연평균강수량은 1,575mm로 비는 6월이나 7월에 3~4주간 계속되는 우기에 집중된다.

◆ 인구 및 면적

교토는 교토 분지 북동부에 건설되었던 헤이안쿄에서 출발하여, 그 지역[市域]이 확대되어 현재의 면적은 610.6km²이다.

인구는 143만명 정도이며 규모에서는 일본에서 6번째의 도시이다. 인구의 대부분은 시의 중심부에 밀집되어 있지만 점차 교외로 확산되어가는 추세이며 오사카 등으로 통근하는 인구도 점차 늘고 있다. 한국인·중국인 등을 비롯해 외국인들도 상당한 숫자에 달하며 일본의 전통적인 천민집단인 부라쿠민[部落民] 문제도 사회문제로 남아 있다.

◎ 나 라 시 [奈良]

역사적으로는 아스카(飛鳥)시대라는 고대국가가 막을 내리고, 710년에 나라시에 헤이조쿄(平城京)라는 대도시가 건설되었다. 교토와 더불어 일본의 오래된 도읍지로, 중국의 장안을 본따서 만들어,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이곳 바로 나라에 대도시가 세워졌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세계문화유산을 간직한 나라에는 오래된 신사와 불상등의 문화재가 많이 있다. 국가의 국보급 문화재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백제와도 관련이 깊은 곳이다.

710년에서 784년까지 일본의 수도였으며, 백제로 부터 최초로 불교를 전파받은 지역이라서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나라현은 일본의 긴키지방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안에 접해있지 않은 내륙의 현으로 지형과 지질상으로 보면 요시노강을 따라서 달리는 중앙구조선에 의해, 북부저지와 남부 요시노산지로 크게 구분된다. 예로부터 긴키 지방 수륙교통의 요충지였으며 지금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 기후

지역적으로 남북차가 뚜렷한데, 특히 북부의 나라분지는 온난·다우에 속하지만 바다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서의 차가 심한 내륙성 기후이다. 여름의 평균기온은 27~28℃, 겨울은 3~4℃로 연교차가 크고, 강수량은 1400mm 내외로 적다. 한편 남부는 산악기후로 여름은 20~24℃, 겨울은 0~3℃로 서늘하고 강수량은 2000~4000mm이다. 이러한 지형·기후상 남북의 대조는 자연적인 식생, 산업개발, 문화적인 생활형태 등에 많은 영향을 준다.

◆ 인구 및 면적

나라는 일본의 거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사방이 오사카부(大阪府)교토부(京都府)와카야마현(和歌山縣)미에현(三重縣)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긴키(近畿)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기이(紀伊)의 산악 지대와 북쪽에 펼쳐져 있는 평야로, 면적 3,692km², 인구 144만명, 현재 9시(市) 20정(町) 18촌(村)으로 되어 있다. 현청소재지 나라시(奈良市[내량시])이다.

◎ 고베 시

1995년 1월 17일 고베 대지진 이후 고베는 새로운 계획도시로 탈바꿈했다. 지진피해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화려하고 세련된 고층빌딩들이 더욱 튼튼하고 건실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고베는 역사적으로 외래문물이 유입된 항구로써 무역의 기지이며, 서구열강의 강제개항과 더불어 외향적인 성격이 강한 도시로 변모되었다.

인구 142만, 일본본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고베는 북쪽으로 롯코산(六甲山), 남쪽으로는 세토나이카이에 의해 둘러싸인 아름다운 도시이다.

◆ 인구 및 면적

고베 시의 인구는 153만명 정도이다. 인구 밀도는 km^2 당 2,768명이었고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가 약 90.2명이다. 고베 시의 외국인 등록 인구는 약 44,000명이다. 가장 많은 국적으로는 한국인(약22,000명), 중국인(약 12,000명), 베트남인(약1,000명), 미국인(약1,000명) 순이다.

◆ 기후

고베시는 온화한 기후로 연중 강우량이 많지 않다. 연평균 기온은 16~18도 정도이고, 여름평균기온은 26~30도, 겨울 평균 기온은 3~5도 이다.

2. 연수 분야

■ 사회복지 분야

◎ 신세대의 등장! '뉴실버세대'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고령화·저출산이 가장 빨리 진행되는 나라다. 안성시 노인인구는 2010년 1월 기준 2만명으로 총인구의 12%에 달하며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다. 전국적으로 볼 때 2026년부터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지난 2006년 선진 주요 국가 중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올해는 노인인구 비율이 23.1%까지 높아지고 오는 2020년에는 3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대부터 급속한 고령화를 겪으며 '초고령사회'에 우리보다 20년은 앞서있는 일본은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제도적 지원 등에서 한국보다 발전돼 있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 노년층 일자리 확보에 주력

도착 첫날 점심식사를 위해 들른 나라의 한 식당, 고운 기모노 차림으로 음식을 나르는 직원은 모두 70세를 넘긴 할머니였다. 숙련된 솜씨와 정숙한 말씨로 손님을 맞이하던 그녀는 "일본의 노인들은 건강에 별 문제만 없다면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길거리에서 마주한 우편배달부도, 사찰을 관리·해설하시는 분도 곳곳에서 노인들은 청년처럼 당당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나라의 한 음식점에서 당당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뉴실버세대〉

이튿날 오사카 시의회를 방문하여 노인 일자리에 대해 묻자 노인복지정책 중 일본 정부가 가장 주력하는 부분이 바로 노인 취업이라 한다. 일본은 1차 베이비붐 기간에 태어난 이른바 ‘단카이 세대’ (1947~49년)의 본격 정년 도달을 앞두고 고령자 재고용 유도정책을 폈다. 특히 2004년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기업들로 하여금 정년제도 폐지, 정년 65살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하고 노인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노인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제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물론 정년연장은 청년실업과 맞물려 있어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프랑스의 퇴직연금 개혁안에 따른 파업사태를 보건데 정년연장의 대상이 수혜자가 아닌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뒷받침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길어진 수명 속에 직장에서 60세도 안되어 나온다면 ‘장수’는 이제 더 이상 복[福]이 될 수 없다. 정년연장을 통해 뉴실버세대를 사회에 주요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부족한 사회보장제도 재원을 확보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일본에서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 노인복지의 서비스화

연수 3일차 방문한 오사카 ATC ageless센터는 뉴실버세대들의 취미활동, 건강관리 등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 연령과 장애에 관계없이 뉴실버세대가 인생 제2막을 풍요롭게 보낼 수 있도록 개발된 각종 서비스나 제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 기저귀나 간이용변대 같은 소모품부터 전기휠체어나 욕조 출입을 돕는 이동의자 기기, 욕창방지 자동 침대 등 고가의 생활보조기까지 고루 전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체험까지 가능하다. 다양한 고령자 맞춤형 제품들은 가족이나 개호서비스 전문가가 하루 24시간을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령자 혼자서도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일본의 실버산업이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데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컸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1985년 실버산업 진흥지도실을 설치한 이래 노인복지에 서비스 개념을 도입,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와 산업을 아우르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여 왔다. 특히 정부의 역할을 민간사업자와 구분하여 경쟁을 막고,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는 등 실버산업 시장 성장을 적극 지원한 결과 더 높은 질의 고객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한다.



▲ ATC ageless센터 현장 체험(차량용 탑승 휠체어)

선진노인복지서비스로 꼽히는 다른 하나는 개호보험제도이다. 일본은 노인 의료비가 전체의 30%를 넘게 되자 노인요양 보장을 위해 1997년 개호보험법을 제정, 2000년 시작하여 2005년 대폭적인 개정을 거쳐 10여년째 시행되고 있다. 처음에는 일본도 여러 혼란이 있었으나 수많은 보완과 수정을 통해 점차 지방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방을 중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복지와 의료를 일원화하고, 7단계로 등급을 세분화하여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복지법에 의해 분리되어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등급 역시 단순히 3등급으로 이뤄져 있으며 예방적 조치보다는 사후적 조치에 치중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운영주체이기에 적극적인데 반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시행착오와 성과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요양보험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요양예방 및 재가 요양의 활성을 꾀해야 할 것이다.



▲ ATC ageless센터 현장 체험

■ 환경자원분야

■ 교통시 남부 자원 리사이클 센터

○ 일반현황



위 치	일본 교토시 후시미구 요코오지센료마츠쵸 447		
센터면적	7,000㎡	건축면적	3,781㎡
선별능력	60톤/5시간		
실제선별	30톤~35톤/6시간		
사 업 비	37억엔(한화 518억원)		
사업기간	1년 6개월		

○ 리사이클센터 운영실태

- 일본 교토 시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이제 하나의 자원으로 리사이클이 되고 있다.

교토 시에서는 종이와 금속, 병, 알루미늄, PET 등 재활이용 가능한 자원을 투명한 재활용 봉투에 담아 주1회 교토 시가 운영하는 유료 수집시설 등 지정된 장소에 배출을하고 있으며, 교토 시에서는 재활용 자원을 파카차(폐기물 운반차)를 이용 수거하여 교토 시 남부 자원 리사이클센터에서 자원으로 리사이클이 되고 있다

-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재활용품 배출시 재활용봉투를 일반 쓰레기봉투의 50% 가격인 ℓ 당 0.5엔(한화 700원)에 구입하여 지정된 날 전 시민이 일제히 배출을하고 있다.

○ 환경선진도시 교토

- 교토 시에서는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식용유(튀김용 기름)를 연료화하여 사용하는 파카차(폐기물 운반차)를 이용하여 수거를 하고 있다.
교토시는 튀김용 기름을 재활용해 바이오디젤로 만드는 사업을 1996년

에 시작하였다. 현재 시민들이 모은 폐식용유로 생산하는 바이오디젤은 연간 12만 ℓ 에 달한다. 시가 운영하는 220대의 청소차에 100% 연료를 공급하고도 남아 시내버스 중 일부에도 이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 시민들이 기름을 모으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 전역에 걸쳐 1천개의 수거장소를 지정했고,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로 만드는 공장도 세웠다. 국가보다 앞서 폐식용유 바이오 디젤의 연료 기준을 정하고, 품질 검사도 완벽하게 했다.



〈폐식용유 바이오 디젤을 사용하는 교토시 청소차량〉

- 교토시의 앞서가는 환경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교토시는 2004년 일본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지구온난화대책조례’ 를 만들어 199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까지 10% 줄이겠다는 목표를 조례에 명시했다. 이것은 국가 기준보다 거의 2배나 높은 목표를 잡은 것이다. 조례 제정 당시 통계(2003년)에 따르면 교토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8억2천800만t으로 그 중 산업부분은 2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연간 1천500㎏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145개(2005년 기준)에 이르는데, 해당 기업들은 3년마다 감축계획서를 내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 또한 이 조례에서는 에어컨, 냉장고, TV 등 전기 소모가 많은 3개 가전 제품에 대해 금액을 포함하는 에너지효율화 라벨을 붙이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뿐만 아니라 이 제품을

쓰면 연간 얼마만큼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까지 담겨 있다. 이는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제품들의 가치를 높여 생활방식을 변화시키지 않고도 환경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자 정부도 이를 따라 정책으로 채택, 일본 정부는 에너지보호법을 개정하게 되어 에너지효율화 라벨 제도는 이제 일본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더욱 유의미한 것은 이는 교토시 환경단체, 공무원, 전문가, 기업인으로 구성된 ‘미야코 아젠다21 포럼’ 을 통해 얻은 성과로 점차 증가되는 가정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고안해낸 것이라 한다. 관 주도하에 이뤄진 것이 아닌 민·관·산업계 파트너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성공이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교토시 남부 자원리사이클센터



▲ 폐식용유 연료화시설 표지판

- 도쿄 시의 리사이클센터(재활용 선별장)에서는 수거한 재활용품을 인력선별과 기계 선별을 거친후 선별된 재활용품을 압축하여 자원으로 재사용되고 있다



▲ 재활용 분리배출 퀴즈문제 풀이



▲ 재활용 품목별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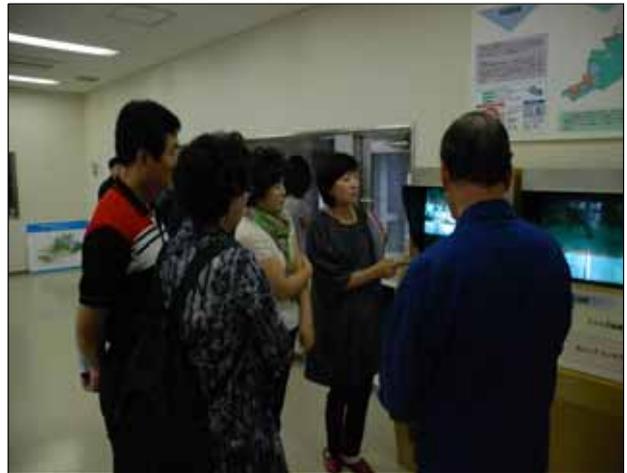
- 이곳 자원리사이클센터 공장장인 오가상은 쓰고난 재활용품을 쓰레기로 생각하지 않고 자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견학 포인트

- 일본에서는 재활용품을 배출시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주 1회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고 있으나 모든 시민이 참여 하고 있으며, 재활용 비닐봉지를 우리나라의 마대자루와 달리 투명한 비닐봉지를 사용하여 재활용품이라는 것을 육안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토 시에서는 자원리사이클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점은 우리시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리사이클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을 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점에서는 우리시와 큰 차이를 두고있다.



□ 리사이클 센터에 대한 담당자 설명



□ 전시물에 대한 설명



□ 재활용품 전시



□ 재활용 수집된 플라스틱류

오사카시의회



오사카의회 전경



안성시의회 전경

오사카 의회		안성시 의회	
시 현황	인구:265만명 면적:222.3km ² 행정구:24개	시 현황	인구:18만명 면적:553km ²
의원	89명	의회구성	9명
연혁	1889년	연혁	1991년
의회조직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6개 -특별위원회: -결산특별위원회 -시정개혁특별위원회 -오사카세재정제도특별위원회 -환경대책특별위원회	의회조직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3개 -특별위원회
의회기능	-의사결정 -선거/동의 -예산 회계감사/질의요구 -권고 -조사		-의안처리(조례등) -예산심의확정 -행정사무감사/조사 -청원 및 진정

○ 오사카 의회

- ◆ 시의회는 주민의 투표에 의거 선출된 의원에 의해 구성된다. 선거권은 만 20세이상의 일본국민으로 시에 3개월이상 주소를 둔 주민에게 주어지며, 피선거권은 만25세 이상인 주민에게 주어진다. 의회의 의원은 24개의 행정구에서 선출되고, 각 구에서 선출되는 의원 수는 원칙적으로 인구에 비례하여 나누어지고 있다.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정해져 있다.
- ◆ 본회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이다. 주요기능은 시의회에 선출된 의안이나 의회로서 의사표명등 의원정수의 반 이상 의원이 출석했을 때 의장의 선언에 의해 개최되고 의회는 의장이 그날의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 위원회

▶ 상임위원회

광범위하고 복잡화, 전문화된 시 사무를 합리적, 능률적으로 조사 심의하기 위해 전문적인 부분별로 위원회를 만들어 의안이나 청원 등 예비조사를 행하고 있다. 시의 사무분야에 따라 6개 상임위가 설치되어 전 위원이 모두 상임위에 속해 있다.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이 있다.

▶ 특별위원회

특정의 문제를 심사하거나 조사 연구등을 하기위해 필요에 의해 본회의 결정으로 설치된 위원회로서 어떤 사안에 대한 심사 또는 조사,연구등이 종료되면 소멸된다.

시의회에서는 매년 결산내용을 심사하기 위해 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밖에 시정개혁특별위원회, 오사카시·세재정제도특별위원회, 환경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안성시 의회와 비교

◆ 오사카의회와 안성시 의회 비교

오사카의회는 오사카 중앙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성시와 동일하게 오사카시청과 함께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오사카시의회 의원들이 사용하는 본회의 장은 규모면에서 우리시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오사카의회의 정원이 89명이고 이에 반해 우리시는 정원이 9명인 점에서 차이가 발생

한다. 시의원은 정당에 가입하고 있으며, 정당별로 배석하게 했다. 또한
 초선의원들에 대한 배려로 초선의원을 앞자리에 앉히게 하고 있다. 오사
 카의회에서는 1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하고 있는 중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다. 안성시도 마찬가지로 2005년 이후 1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하는
 중선거구 제도에 의해 1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고 있으며, 여기에
 비례대표자 1명을 추가하여 총 9명의 시의회 의원이 있다. 오사카시의 의
 원 총수로 비교하자면 우리시와 큰 차이가 있지만 양 시간의 인구수등을
 가만 한다면 의원수에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운영적인 면에서는
 각 나라 지역의 특징이 있었다. 우선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일본은
 별도로 개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명의 직원을 둘 수 있었다. 개별
 사무실과 직원에 운영비는 청구에 의해 지급되었다. 안성시의 경우 개인
 별 사무실은 없으며, 별도 의원별 직원 채용을 하지 않고 시청 소속 의회
 사무과 직원이 보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진행의 경우 특정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들의 비밀투표를 통하여 가부를 결정하지만 오사카시의 경
 우 현재까지 비밀투표(무기명투표)로 안건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면이 있
 다. 비밀투표와 공개투표간의 선택은 나라별 지역별 선택함에 있다.



안성시의회 의원의 질의



오사카의회 담당자 답변

■ 생태환경분야

■ 교토부립 카모가와 공원(하천공원 시찰지역)



카모가와 공원 전경

◆ 일본 교토부립 강변공원	◆ 안성시 강변 공원
◆ 명 칭 : 교토부립 카모가와공원	◆ 명 칭 : 안성강변 공원
◆ 면 적 : 30.1ha	◆ 면 적 : 3.6ha
◆ 주요시설 : 운동광장, 산책로 아동광장, 게이트볼장	◆ 주요시설 : 주차장(3개소),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 관람석
◆ 관 리 : 교토상수사업소 - 교토시내의 하천, 사방, 공원등 에 관계되는 정비, 관리 업무나 건설업의 허가 등의 업무 담당	◆ 관 리 : 안성시청 재난안전관리과
◆ 조 례 : 가모가와 조례	◆ 조 례 : 없음 ※ 하천법에 의해 하천관리 및 공원관리

◎ 카모가와하천 공원

- ◆ 카모가와 공원은 교토시의 중심부를 흐르는 카모가와 하천 부지에 정비된 공원이다. 남북으로 흐르는 물가의 녹지는 시가지안에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 ◆ 하천·공원관리(교토 상수사업소)
교토시내의 하천, 사방, 공원등에 관계되는 정비, 관리 업무나 건설업의

허가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주된 담당부서는 총무계약실, 관리실, 하천 사방실, 부영(府營)주택의 관리, 택건업건축사사무소등에 관계되는 사무로 구성되어 있다.



카모가와 공원 담당자의 설명



카모가와 공원 산책로



카모가와 공원 담당자 안내



카모가와 공원 안내판

◆ 카모가와 조례

방치된 자전거 등 쾌적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나 주변의 시설·설비에 의한 경관저해, 그위에 환경적 면을 포함시켜 폭넓은 과제가 있어 이것에 대응하고, 하천환경을 안전하게 동시에 쾌적한 것으로서 다음 세대에 이어주기 위해서 교토부 가모가와 조례가 제정되었다.

2007년 7월 10일 공포되었으며, 각종규제에 관한 조항은 2008년 4월 1 일에 시행되었다.

◎ 카모가와 강 공원과 안성시 하천 공원 비교

- ◆ 가모가와강은 교토시의 정치·경제·문화 중심하천(강)이다. 또한 일반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모든 시민이 지속·쾌적하게 강을 이용하

기 위하여 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조례의 기본이념은 가모가와가의 역사와 문화적가치를 이해한후 편안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의 정비와 보전함에 있으며, 이러한 조례의 운영은 부민협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부민협동은 3개월에 1회씩 개최를 하며 회의 인원은 25명~30명이다. 구성은 가모가와 강에 관심있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 13~14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일본 강의 일반적 특징은 유속이 빠르다는 것이 있다. 가모가와강 또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관리사무소는 이러한 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를 설치하였다. 담당자에 의하면 향후에는 이러한 보 설치시 물고기가 상하류를 서로 움직일수 있도록 하게끔 한다고 하였다.

안성시도 안성천변을 중심으로 안성둔치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안성시의 경우는 하천 및 하천내 공원을 시청 재난안전관리과 하천계에서 하고 있으며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여 하천관리는 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하천의 종합적인 관리는 하천법에 의거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의 특성에 맞게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하다. 교토시의 하천계획은 30년 주기로 계획을 새로이 하고 있으며 반면 우리의 경우는 50년을 주기로 하고 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급변해 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에는 50년 주기가 비 현실적이지 않는가 생각해 본다.

■ 요도가와 강 주변 생태환경

◎ 일반현황



유역	시가 현, 교토 부, 오사카 부, 효고 현, 나라 현, 미에 현
길이	75.1km
평균수량	163 m ³ /s
유역면적	8,240 km ²
수원지	비와 호
하구	오사카 만

◎ 주요특징

- 요도가와 강은 일본 혼슈 오사카 부의 주요 강이다. 일부 구간에서는 세타 강(瀬田川), 우지 강(宇治川)으로 불린다. 강의 수원은 북쪽 시가 현의 비와 호이다. 요도가와 강은 시가 현에서 대개 세타 강으로 불리고 오쓰 시의 호수의 남쪽 출구에서 시작된다. 호수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댐이 있다. 하류로 가면서 세타 강은 교토 부를 흐르고 이름을 우지강으로 바꾸며 다른 두 개의 강인 가쓰라가와 강, 기즈 강과 합쳐진다. 가쓰라가와 강은 교토 부의 산에 발원지가 있는 반면에 기즈 강은 미에현에 있다. 세 강은 합쳐져 요도가와 강으로 불리고 남쪽으로 흘러 오사카를 통과해 오사카 만으로 빠져 나간다. 강은 관개와 수력발전에 사용된다.

◎. 요도가와 하천공원



▲ 요도가와 하천공원 내 공원시설

- 요도가와 하천공원은 재단법인 하천환경관리재단이 운영하는 요도가와의 하천부지에 있는 공원으로, 하천정비에 의해서 하천부지를 살리고, 오사카 지역 사람들에게 풍부한 자연환경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자연관찰이나

아웃도어 활동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요도가와의 하천부지를 이용한 넓은 공원에는 공원시설 외 야구장·테니스코트·육상 트랙·축구장·력비장 등 다양하며 이러한 시설 이용자 수는 연간 약 80만명이다.

- 요도가와 하천공원은 자연환경 보전·재생구역, 수변환경 보전·재생구역, 다목적 이용구역의 3개 지역설정계획(지역구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자연환경 보전·재생구역은 간석이나 사주, 요시원 등의 요도가와 특유의 자연환경을 가지는 지구이고 생물의 생식·생육의 장소로서 자연환경의 보전·재생을 도모하며 이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제한

하기도 한다. 수변환경 보전·재생구역은 수륙변이지대 등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산책이나 관찰 등을 통해 자연과 접하는 구역이고 다목적 이용구역은 놀이나 운동, 휴식, 산책 등의 형태로 요도가와 자연환경 속에서 휴식하는 장소로서 다양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기는 구역이다.

■ 토바 수질환경 수질환경경계 보전 센터



일본 토바 공공하수 처리장 전경

◆ 일본 토바 공공하수 처리장	◆ 안성시 공공 하수 처리장
◆ 명 칭 : 토바수질환경경계 보전센터	◆ 명 칭 :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성·불당·진사 공공하수처리시설)
◆ 처리능력 : 토바(975,000 ^{m³} /일)	◆ 처리능력 : 안성(17,500 ^{m³} /일) 불당(10,000 ^{m³} /일) 진사(5,000 ^{m³} /일)
◆ 처리방법 : 하수관로 시스템:합류식 시스템 슬러지처리방식:중력식농축→탈수	◆ 처리방법 : 하수관로 시스템:합류식 시스템 슬러지처리방식:중력식농축→탈수
◆ 부지면적 : 약50ha	◆ 부지면적 : 안성(56,115 ^{m²}) 불당(34,705 ^{m²}), 진사(5,590 ^{m²})

◎ 토바 수질환경경계 보전 센터

- ◆ 토바 수질환경경계보전센터는 교토시 최대의 규모이며, 전국에서도 우수한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시설의 개축 신설에 맞추어 고도처리의 도입에 노력하고 있다.

- ◆ 교토시 인구의 약 55%, 면적의 약55%의 구역의 오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방류 하천은 히가시타카세강과 카츠라가와 강이다. 시설은 “물처리시설” 과 진흙 처리 시설 “로 나누어져 있다. 진흙시설에서는 진흙을 감량·무해화하기 위해 탈수·소각해 「재」로 한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온 하수



깨끗하게 정화된 하수도물



처리장 담당자의 시설 설명



정화된 하수도물 탁도 확인

◎ 안성시와 비교

- ◆ 토바 수질환경경계 보전 센터는 합류식 관로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합류식 지역에 설치된 하수관거는 우수의 배제에 주안점을 두고 부수적으로 우수를 방류하고 있다. 오수는 차집관거에 배제하도록 설치된 시설로 합류식관거는 우수의 유속기준에 맞추다보면 건기시 우수의 적정유속이 나오질 않아 관거내부에 퇴적물이 쌓여 집중호우시 우수배제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안성시도 현재 합류식 관로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분류식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시

점에 있다. 그러나 분류식 시스템의 문제점은 많은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집집마다 관로를 연결하여 한곳을 집중화 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시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분류식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시의 환경보호 의지를 엿볼수 있다.

■ ATC 에이지레스센터

◎ 일반 현황

- ◆ 명 칭 : ATC 에이지레스센터(개호복지 플라자)
- ◆ 설 치 자 : 오사카시, 아시아 태평양 트레이드센타
- ◆ 소 재 지 : 오사카시 스미노에구 낭코우키타 2가 1-10
- ◆ 규 모 : 약 5000^{m²}
(개호·복지 플라자:3400^{m²}, 액티브·커뮤니티 플라자:1600^{m²})
- ◆ 규 모 : 2개층(관청건물 9~10층 사용), 약 3,700^{m²}
- ◆ 개관시간 : 월~금 10:00~17:00 / 토 10:00~19:00
토·일요일, 공휴일 10:30~17:30

◎ ATC 센터 구성

- ◆ 세미나·이벤트
건강이나 복지·개호에 관한 세미나나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병과 약에 관한 상담 등 수많은 이벤트를 개최)
- ◆ 정보발신
복지/간병이 필요한 사람의 대부분은 불행히도 자신의 의지를 충분히 주위에 바람을 전하고 있지 못한다. 케어 매니저와 도우미들은 그런 사람들의 대리인이며 대변자이기도 하다. 복지/간병을 지원하는 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여기에서 수집하고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업체 및 관계자에게 전달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서 에이지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상품전시**

ATC 에이지레스센터에서는 다양한 메이커의 복지관련 기기나 헬케어용 주텍/가구, 각종 케어용품 등을 전시하고 있다. 견학하러 온 사람에게 상품의 테스트나 비교 검토, 그리고 신제품의 지식을 얻는 장소로서 활용하고 있다.

◆ **연수회**

각종 연수회를 개최할 수 있는 회의실이나 마이크, 디스플레이 시스템 (OHP)시설도 가지고 있어 케어 매니저 등 연수회의 장소로서 이용할 수 있다.

◎ **ATC 에이지레스센터(노인복지의 서비스화)**

연수 3일차 방문한 오사카 ATC ageless센터는 뉴실버세대들의 취미활동, 건강관리 등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 연령과 장애에 관계 없이 뉴실버세대가 인생 제2막을 풍요롭게 보낼 수 있도록 개발된 각종 서비스나 제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 기저귀나 간이용변대 같은 소모품부터 전기휠체어나 욕조 출입을 돕는 이동의자 기기, 욕창방지 자동 침대 등 고가의 생활보조기까지 고루 전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체험까지 가능하다. 다양한 고령자 맞춤형 제품들은 가족이나 개호서비스 전문가가 하루 24시간을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령자 혼자서도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일본의 실버산업이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데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컸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1985년 실버산업 진흥지도실을 설치한 이래 노인복지에 서비스 개념을 도입,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와 산업을 아우르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여 왔다. 특히 정부의 역할을 민간사업자와 구분하여 경쟁을 막고,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는 등 실버산업 시장 성장을 적극 지원한 결과 더 높은 질의 고객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한다.

선진노인복지서비스로 꼽히는 다른 하나는 개호보험제도이다. 일본은 노인의료비가 전체의 30%를 넘게 되자 노인요양 보장을 위해 1997년 개호보험법을 제정, 2000년 시작하여 2005년 대폭적인 개정을 거쳐 10여년째 시행되고 있다. 처음에는 일본도 여러 혼란이 있었으나 수많은 보완과 수정을 통해 점차 지방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방을 중시하는 시스템

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복지와 의료를 일원화하고, 7단계로 등급을 세분화하여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복지법에 의해 분리되어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등급 역시 단순히 3등급으로 이뤄져 있으며 예방적 조치보다는 사후적 조치에 치중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운영주체이기에 적극적인데 반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시행착오와 성과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요양보험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요양예방 및 재가 요양의 활성을 꾀해야 할 것이다.



ATC ageless 시설 체험(전동욕조)



ATC ageless 시설 체험(휠체어)



ATC ageless 담당자의 설명



ATC ageless 시설 체험(전동침대)

친환경(녹색성장)에너지분야

◎ **미야코 에콜로지센터**

미야코 에콜로지센터는 1997년 12월 교토시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COP3) 개최를 기념하고 이 회의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보다 적극적인 실천을 도모하고자 지어진 교육장이다. 매년 8만명 이상이 이곳을 방문,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시민들의 역할에 대해 배운다.

미야코 에콜로지센터는 건물전체가 하나의 에코 전시장으로서 설계에서 자재 하나까지 철저히 친환경적 측면이 고려된 건물이다. 옥상에는 태양열 집열패널과 풍력발전 체험시설이, 지하에는 지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옥상정원을 사이로 맞바람 구조의 옥탑층은 환기를 원활하게 하고 보온을 도와 겨울에는 냉기가, 여름에는 열기가 건물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냉난방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다. 또한 빗물을 이용하여 옥상연못을 꾸몄는데 이는 여름철 콘크리트로 뜨겁게 달궈진 건물 표면 온도를 낮추어주고 새와 곤충, 식물들이 살아숨쉬는 하나의 비오톱을 형성한다. 이 빗물은 관을 통하여 지하에 마련된 70톤 규모의 빗물 저수조로 모아서 화장실 세정수 및 식물 재배 등에 이용한다. 센터 스텝은 우리에게 “정원에 자라는 식물을 위해 일부러 상수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냐?”는 단순한 질문을 던졌는데 당장의 편의만 생각하고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 무심코 해온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작은 부분에서의 변화만으로도 우리가 사는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미야코 에콜로지센터는 태양, 바람, 비, 흙 등 건물을 둘러싼 모든 자연 어느 것 하나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자연을 훌륭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안해낸다. 자연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첫 번째 지혜가 여기에 있다.

지붕 위의 패널 안에는 저온에서도 열지 않는 에틸렌글리콜 부동액을 넣어 여름에는 야간의 자연풍으로 냉각하고, 겨울에는 태양열로 가열한다. 이를 천장과 바닥 콘크리트 속 코일의 냉난방수로 공급해 실내 냉난방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단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복층유리를 사용하였고 건물 콘크리트 외부에는 단열재를 설치하였다. 재사용과 재활용을 비롯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들이 건물 전체를 채우고 있



다. 이를 시민들이 쉽게 알아채고,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따라 옮길 수 있는 <센터 곳곳에 숨겨진 에너지 절약 아이디어를 알려주는 벌레 표지>

도록 건물 곳곳에는 에너지 절약 아이디어가 담긴 곳마다 벌레모형으로 표시하고 있다. 일상에서 쉽게 바꿔봄직한 것을 찾아내 행동으로 유도하는 세심함, 이것이 두 번째 지혜이다.

미야코 에콜로지센터는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친환경’으로 가득하다. 1층의 에콜로지 체험코너, 발견과 배움의 광장, 2층의 기획 전시, 워크숍 코너, 자료정보센터, 활동지원실, 3층의 재활용 아틀리에, 에코 주방, 아이들 광장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친환경이라 해서 이상적인 가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비용을 년도별로 수치화 하여 쓰레기에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 것인지,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절감한 비용을 복지향상 등 다른 곳에 유용히 쓰일 수 있음을 알려주며 현실적인 경제적 논리로도 자극하고 있다. 특히 이 곳에서는 근교 초등학생들이 옥상의 작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를 이용하여 에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남은 쓰레기를 지렁이를 이용한 미미노컴포를 통해 처리한다. 아이들이 환경문제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여 자연스럽게 환경보전을 위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험과 놀이를 통한 환경학습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렇게 어린시절부터 이뤄진 환경학습은 환경의식을 높은 수준으로 자리하게 한다.



<1일 사용 자원량을 측정해볼 수 있는 시소게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야코 에콜로지센터의 인력구성이었다. 10여명의 스텝과 80여명의 에코메이드(자원활동가)로 이뤄져있는데 여기에 미야코 에콜로지센터 운영의 핵심이 들어있다. 바로 ‘전파력’이다. 에코메이드는 이곳에서 3년의 연수과정을 거친 후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가게 된다. 환경 문제는 일상과 맞물려 계속 발생하는 것이기에 한 번의 교육이나, 한 명의 실천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며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한 명의 에코메이드는 열 명, 백 명의 에코메이드로 퍼지게 된다. 이해가 행동으로 옮겨가게 될 때 비로소 환경보전정신은 세대를 넘고 시대에 반영되는 견고한 생명력을 갖게 된다. 이것이 미야코 에콜로지센터의 세 번째 지혜이다.



<에코메이드들의 참여 속에 환경보전활동의 본부로 자리매김한 미야코 에콜로지센터>

자원이 넘쳐 풍요로운 현대의 삶 이면에는 빈부의 양극화와 환경파괴라는 어둠의 그림자가 있다. 지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에게서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환경을 보전하고, 후손에게 깨끗이 돌려줄 의무가 있다. 우리의 조금의 부담과 노력은 미래 후손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연과 조화된 ‘생태적 삶’은 반발짝 내미는 실천의 발걸음에 있음을, 그리고 이것이 널리 퍼지고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공유하고 함께하는 힘을 통해 이를 수 있음을 미야코 에콜로지센터를 통해 다시금 새기게 되었다.

■ 재래시장 현장견학

◎ 구로몬시장·도통보리·신사이바시·차이나타운



구로몬시장 전경(재래시장)



구로몬시장 현장 체험

◆ 구로몬시장

1820년대에 생긴 구로몬 시장은 오사카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다. 시장근처에 엔메이지라는 절이 있어서 엔메이지시장이라고 불리웠다가 그 절에 검은 문이 생긴 이후로 검은 문(黒門 = 구로몬) 시장이 되었다고 한다. 그 나라의 서민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만큼 좋은 장소는 드물 것이다. 백화점은 어느 나라를 가든 비슷한 브랜드의 제품과 비슷한 사람들 밖에 못보지만 재래시장은 그 나라의 다양하고 독특한 볼거리 구경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재래시장의 매력은 바로 냄새와 소리이다. 세련되고 깔끔한 쇼핑몰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할 청각, 후각 그리고 시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온갖 해산물의 냄새와 상인들의 고함소리가 어우러져 시장 특유의 에너지

지를 분출하고 있었다.

구로몬시장을 보면 안성시장을 비교하게 된다. 구로몬 시장 뿐 아니라 일본은 모든 제품에 대해 가격표가 붙어 있다. 시장은 잘 정리되고 깨끗하였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이 소비자를 구로몬 시장으로 모이게 한 듯 하다.



도통보리 간판(움직이는 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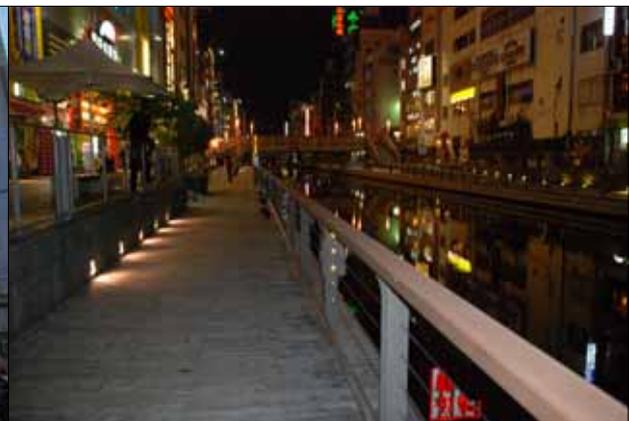
도통보리 간판 (라면가게)

◆ 도통보리

난바로 이어지는 에비스바시에서 동쪽의 닛폰바시에 이르는 지역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독특한 간판이 많다. 가장 인상 깊은 간판은 게 간판이다. 도통보리를 처음 유명하게 한 것이 움직이는 게 간판이라고 한다. 작은 차이가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안성시에도 이러한 것을 벤치마킹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 오사카를 대표하는 다코야키집, 회전초밥집, 긴류라면(금룡라면) 같은 음식점도 많다.



신사이바시 전경



신사이바시를 흐르는 천

◆ 신사이바시

오사카 최대의 쇼핑가로 각종 백화점과 아케이드 거리가 난바까지 연결되어 있다. 아케이드 거리 외에도 서쪽에는 유럽무라, 동쪽에는 아메리카무라가 있다. 유럽무라에는 각종 명품을 파는 상점들과 고급 레스토랑, 카페들이 밀집해 있어서 오사카지역의 부유층들이 자주 찾는다. 아메리카무라는 힙합 캐주얼 상점이나 인디안물건 가게, 클럽 등이 모여 있어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다.



차이나 타운 양동이 묘기



차이나타운을 알리는 문

◆ 차이나타운

어느나라이건 간에 차이나타운은 그 나라에서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간다. 일본 고베의 차이나 타운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리 길지 않은 일직선의 공간에 사람을 모이게 하고 있다. 정면에 큰 문이 차이나 타운임을 알리고 있다. 그리고 양 쪽으로 조그마한 가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것은 어떤 분의 양동이 묘기였다. 양동이 주변을 비비면 물이 튀어 올라오고 있었다. 중앙에는 정자가 있고 정자주위에는 12지신 동물이 석상으로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조그마한 크기의 가게이다. 16m² 정도의 음식점이 있는데 이러한 가게에서 이러저러한 것을 파는 모습이 작은 스몰 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작지만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작은 샵” 이러한 것을 안성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해 본다.

벤치마킹 참고자료



▲ 태양열을 이용한 쓰레기 수거



▲ 특색을 잘 활용한 간판의 거리도통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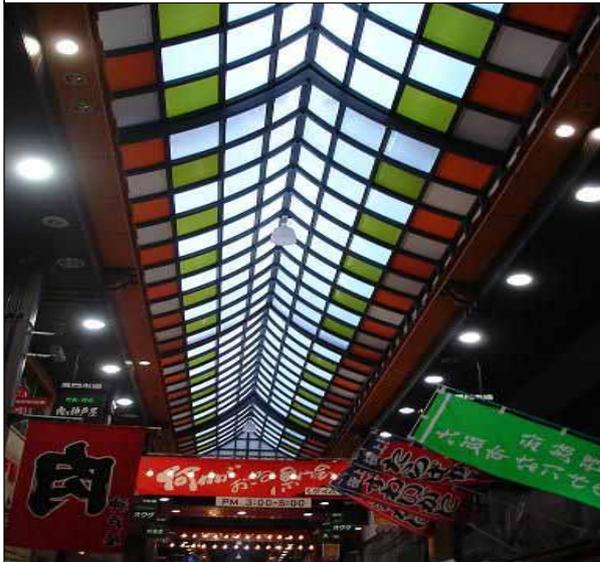
▲ 오사카 시의회 정례회 안내



▲ 장애인 편의를 위한 휠체어 비치



▲ 태양열을 이용한 자동판매기



▲ 재래시장 내 차양시설(도통보리)



▲ 거리에 설치된 금연안내



▲ 친환경 설비와 참여를 소개하는 에코벌레



▲ 횡단보도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



▲ 청각 장애인을 배려한 도로

일본연수를 마치고

- 일본을 지탱하는 근본정신을 한자로 표현한다면 ‘和’의 정신
어느 거리를 가던 정갈한 질서 의식, 대를 이어가는 투철한 장인정신 등은 모두 전통과 협동을 중시하는 ‘和’의 정신에 기반한다.
일상에서의 전파력을 믿으며 생태적 삶의 실천을 강조한 교토의 ‘미야코 에콜로지센터’에서도, 노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는 국가 모든 구성원의 책무이면서 권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보여준 오사카의 ‘ATC ageless’에

서도,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구원의 손을 내미는 것은 바로 ‘이웃’ 이라며 사람의 소중함을 일깨우던 고베의 ‘사람과 방재센터’ 에서도 내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함의 힘” 이었다. 일본 사회의 저력은 바로 그 함께함에서 나오는 것임을 곳곳에 깊이 느낄 수 있었다.

- 우리보다 앞선 지방자치 실현과 환경관련 시설 및 문화 관광자원 관리가 잘 발달된 일본 오사카를 비롯해 교토, 고베 등 일부 도시 한국과 일본.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가까이 닿아있기에 처한 사회적 상황들, 고민하는 부분들도 많이 닮아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노인복지와 환경보전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들을 얻는 동시에 일본사회에 대하여 좀 더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나름대로 부지런히 보고, 느끼며, 배우는 자세로 임해 앞으로 시정에 접목하는 등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노력하였다. 오사카시에서는 시의회, 요도가와 강 주변 생태 등에 대해서 그 밖의 도시에서는 자원 재활용 실태, 지진방재 견학 등에 대해 직접 체험하였다.

- 이번 일본연수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정책 결정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과 환경친화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으며, 연수기간 동안 현지에서 느낀 점은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일본인의 계획성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지역발전과 환경개선 그리고 시정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는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